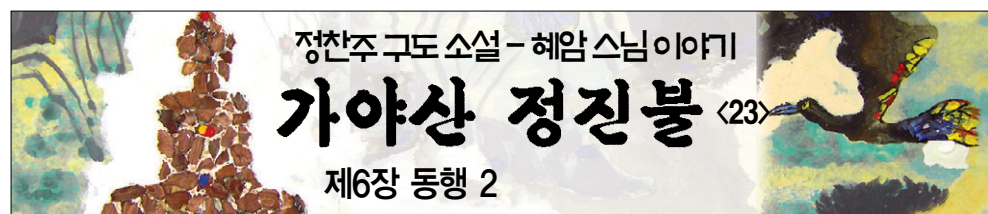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나의 본래면목이 '이뵈고'



한때 사고암이라 불렀던 영감사는 수행하는 스님이 머물고 있는 듯 사각(史閣)과 달리 정갈했다. 절 마당은 비질 흔적이 또렷했고, 낮은 담 안에는 야생화가 피어 호랑나비를 유혹하고 있었다. 오랜 만에 보는 호랑나비의 자태였다. 나비 중에서도 호랑나비는 가법지 않고 위엄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영감사 토방에는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신발을 나갔거나 불 일이 있어 절을 잠시 비운 것 같았다. 대연 거사와 현각 거사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햇볕에 달궈진 마루 끝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큰스님이 오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행하기 좋게 건물을 복원해 놓았지만 큰스님께서 사실 때는 움막 수준의 토굴이었다고 합니다.”

현각 거사는 사고암이 지금처럼 바뀐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대연 거사는 현각 거사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대사를 마치겠다는 비장한 결의이지 결코 편안한 수행환경은 아닐 것이었다. 천축의 유마 거사나



대한 존경심이 상좌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좌 분들보다 더하다는 것은 과분한 말씀이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연 거사는 그 인연을 좇아 자신이 지금

님이 머무는 극락전으로 가 스님을 시봉했다. 현각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해암 스님을 은사로 삼아 사미계를 받았다.

“계 받을 때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 없었고요, 다만 ‘현각’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는데 그때 저는 저 나름대로 현각이란 법명을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 학원을 다니면서도 화두는 놓지 않았다.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데 어느 날 화두에 대한 알음알이가 생겼다. 현각 나름대로 화두가 풀어져버렸다. 학원에서 배우는 난해한 방정식처럼 해답이 나와 버렸던 것이다. 화두를 수학문제처럼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답이 없어야 화두는 활구(活句)가 되는데, 그 반대가 됐으니 현각의 화두는 사구(死句)나 마찬가지였다.

할 수 없이 현각은 해암 스님에게 ‘화두를 드는 재미가 없어져버렸다’고 고백하는 편지를 썼다. 그러자 해암 스님이 곧 자상한 답장을 보냈는데, 현각에게 다시 준 화두는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이었다.

대연 거사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현각 거사님 큰스님의 유물이란 무엇입니까?”

“큰스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 한 장입니다.”

현각 거사가 주머니 속에서 편지봉투를 꺼냈다. 봉투 속에는 해암 스님이 현각 거사에게 보냈다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대연 거사는 편지를 빼앗듯이 받아들고서는 단숨에 읽었다.

父母未生前我本來面目 是誰?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나의 본래면목이 이뵈고

心馬跳走暫不停

‘화두 드는 재미’

잃은 현각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해

속가 조카 현각

정진하는 모습에 믿음

‘이뵈고’ 화두 쥐

중국의 달마 대사도 사방 1장(丈) 크기의 차가운 동굴에서 정진했지 지붕이 고래등 같은 호사스런 절을 찾지는 않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영감사 스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혹시 영감사에 해암 스님이 남긴 일화나 유물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영감사는 20명의 승군이 머물렀던 사찰치고는 터가 좁았다. 터의 규모를 보아서도 20명이 항상 주둔했다기보다는 월정사의 승군들이 교대로 올라와서 사고를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대연 거사는 아까부터 눈앞에서 어른거렸던 호랑나비를 찾았다. 문득 호랑나비가 해암 스님의 흔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호랑나비는 절 입구 너머에 핀 원추리 꽃에 앉아 있었다. 원추리 대공이 길어 쉽게 눈에 띄었다.

그때 대학생인 듯한 남녀가 나타나 대연 거사에게 합장하면서 물었다.

“영감사에 계십니까?”

“저도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청년은 디지털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면서 개량한 북 처럼의 대연 거사를 사교 관리인으로 알았는지 그렇게 물고 있었다.

“무슨 일로 스님을 찾습니까?”

“사각 건물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어서요, 강원대 건축학부 학생입니다.”

“현재는 실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건 저희도 압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사고 안의 건물 구조입니다. 실목을 보관했던 건물

내부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각과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고까지 올라온 것을 보니 탐구심이 강한 대학생 같았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청년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다.

“저도 이곳에 계시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처럼 사고를 알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스님이 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지 여쭙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루에 앉아 기다려보시죠, 뭐.”

청년은 여학생이 공연히 헛걸음했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자 머쓱해하며 돌아섰다.

“다음에 다시 와 보겠습니다.”

“미리 전화로 연락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연 거사는 그들이 내려간 뒤에야 옹달샘으로 가 물을 마셨다. 그런 뒤 표주박으로 물을 떠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는 현각 거사에게 건넸다. 현각 거사가 소리 나게 물을 마시고 나서는 말했다.

“저에게 해암 큰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대연 거사님께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각 거사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대연 거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큰스님의 속가 조카이자 제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스님을 사모하는 대연 거사님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 큰스님이

오대산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여행은 순례도 아니고 관광도 아닌 그 무엇인 것이었다.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그 무엇이란 인연으로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현각 거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큰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는 유물이 무엇입니까. 가슴이 설립니다.”

“큰스님의 유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제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각 거사가 먼 산을 응시하며 말했다.

“출가하신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암 스님의 속가 어머니가 별세한 때는 1972년이였다. 그러나 해암 스님은 어머니의 별세 소식에도 속가에 가지 않았다. 다만, 다음해 백양사 가는 길에 속가를 잠깐 들렀다. 그때 어린 현각은 처음으로 해암 스님을 뵈었다. 현각이 조동학교를 막 졸업하고 난 후였다. 현각은 감히 말을 건네지 못하고 속가 토방 밑에서 마루에 위의를 갖추고 앉아 있는 해암 스님을 우러러 보기만 했다.

현각은 3년 후, 19세 되던 해에 해암 스님의 속가 동생 태오 스님을 따라서 해인사로 갔다. 그런데 그때 해암 스님은 해인사에 없었다. 해암 스님을 복벽한 수행자로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현각은 자못 실망했다. 해암 스님은 수좌로서 칠불암 선방에서 정진 중이었던 것이다.

현각이 행사생활을 끝내고 사미계를 받을 무렵에야 해암 스님은 해인사로 돌아왔다. 현각은 해암 스

법명이 마음에 쏙 들었지요. 큰스님도 조카라고 해서 저에게 특별하게 대해 주시진 않았습디다. 그래도 저는 큰스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겼고,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을 황홀하게 생각했습니다.”

현각은 1977년 동안거가 해제되자, 정월에 계를 받은 종목하고 해암 스님을 따라서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갔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낸 곳이 상무주암입니다. 낮에는 나무해서 지계질을 하고, 밤에는 참선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정식 공양은 점심뿐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밀근 죽이고, 오후에는 불식(不食)을 했으니까요. 공양 준비하고 올리는 일은 광명화 보살님하고 늘 두 분의 보살님이 도왔습니다.”

현각은 속가에서 12세 때부터 낫질과 지계질을 해 보았으므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다. 속가에서는 권력이나 부(富)가 전부인 양 생각했는데, 암자에서 참선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행복했다.

“큰스님께서 속가 사람들을 출가시키거나 불심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자 저에게 기대하고 참선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978년에는 저의 정진하는 모습에 믿음이 가셨는지 ‘너는 토굴생활 혼자 해도 되겠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상무주암을 떠난 현각은 해인사를 거쳐 1980년에 서울로 갔다. 사형 무일 스님이 주지로 있는 화곡동 관음정사로 가 승복을 입은 채 전철로 타고 오가며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출가해 학문에 대한 갈증이 컸기 때문이었다. 전철을 이용하

捉來捉來又捉來 如是久久久深 不捉自來在目前 始知如是境界時 不意自覺本自性 傍人若問心在處 月到天心夜三更

미친 마음 말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뛰여 달아남에 잡히고 잡이와 또 잡이와서 이 같이 오래오래 날이 깊어지면 잡아채지 않아도 스스로 와 눈앞에 있으리라. 비로소 이 같은 경계에 이르러 될 때 뜻밖에 본자성을 깨닫게 되리라. 마음이 있는 곳을 열 사람이 묻는다면 달은 한복판에 이르렀고 밤은 삼경이로다.

이 문중에 와서는 알음알이를 쓰지 말라(此門內 莫存知解) 화두는 격외선(格外禪)이라. 분별심(分別心)으로 알려고 때고 붙이고 하지 말고, 다만 모든 곳을 향하여 의심을 일으켜 들어갈 뿐이다. 자미(滋味)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거라. 우선 이만 줄인다.

해암 스님의 글씨는 또박또박 했다. 편지지가 풀 어질 정도로 놀려 쓴 글씨였다. 현각을 제도하겠다는 스승으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편지지 안에 가득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총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돌아 안된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동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 15) ~ 8월 15일(음 6. 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2009년 하안거 7일 동맹정진 7월 22일(음 6. 1) 3시 ~ 29일(음 6. 8) 3시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대도종 배우려면
몸을 이며 내두하여
영가나 내려라도 속지클 막지어다.
볼꽃이 나라는 그대나 도어미만
이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 대종사 법어 -